



# 도전은 내 삶의 한 부분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겠지만 내게 도전은 삶의 한 부분이며, 뿔뿔이 떨어져 있을 수 없는 숙명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도전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착상되기 전부터 경쟁에 나서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세상을 보기 위해 도전했기 때문에 현재의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입대하면서 학사장교(ROTC)로 입대를 결정했다. 일반 사병으로 입대를 해야 할지 아니면 장교로 군 생활을 할지에 대해 고민하다 새로운 분야의 도전을 위해 장교입대를 선택했으며, 소총 소대장 역할을 수행하다 좀 더 유익한 군 생활을 위해 미 8군 통역장교에 도전했다.

또한 군 제대 후 국내 모 기업 영업사원이던 나는 또 다른 도전의 필요성을 느껴 해외 오지 아프리카 세일즈맨으로 변신했고, 우연히 영국의 런던 거리에서 DHL 마크의 차량을 보고 물류산업에 대한 도전의식이 생기면서 또 다른 변신을 거듭해 현재는 전문 경영인에서 오너 경영인으로 변신했다.

또한 나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고된 직장 생활 속에서도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밟으며 수료했고, 올해는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정신력과 체력의 한계를 넘어 보고자 춘천마라톤과 서울에서 열린 마라톤 42.195km 풀코스 에 도전해 4시간 30분대로 2회 완주를 기록했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면서 11년 전 14살, 13살 아이들을 아무 연고도 없는 영국 기숙사에 던져놓았다. 다행히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아이들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두 아이 모두 세계 어디에 가서도 살아갈 수 있는 독립심이 매우 강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했다.

결국 내 삶에서의 도전은 자기만이 아닌 주변의 가족과 회사직원들 사이에서도 본인이 솔선수범하여 변화하고 도전하여 새로운 모델을 보인다면 주변의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변하여 같은 발전 궤도를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돌이켜 보면 나의 삶은 변화와 도전의 연속이었으며, 이러한 도전의 원천은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데 있어 지침이 된 아래와 같은 좌우명들이 있다.

- 준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 신은 위대한 자에게 더 많은 시련과 고통을 준다(자기위안).
- 나는 매일 매일 좋아지고 있다(I am getting better day by day).
- 내일은 오늘 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
- 산의 정상에 도달하면 또 오를 산을 찾는다.

우리는 20세기를 끝내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로의 변신과 새 물결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의 도전은 우리의 존재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함과 동시에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는 도구가 된다.

이제 사회생활 30년 간의 경험 속에서 회사와 개인의 발전을 변화 속에서 추구하면서 몇 가지의 도전과 관련된 견해를 후배들에게 충언하고자 한다.

1. 패러다임 시프트(고정관념 탈파)와 변화를 주도하라. 계절이 바뀌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두터운 코트를 벗어 버리는데 본인만이 코트를 입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변화가 일어난 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앞선 변화의 물결을 파악하고, 우리 스스로가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도전인으로 살아야 한다.

2. 현재의 편안함에 익숙해 변화거부증, 즉 과거의 관성(Inertia)에 빠져 있지 않는가? 상자 속에서만(Inside of Box)의 관점 때문에 상자 밖의 세상(Outside of Box)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3. 미래예측(Futures Forecasting)이 아닌 미래 선견력(Futures Foresight)을 길러야 한다. 예측은 안정적인 환경에 유용하나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서는 무용지불이다. 선견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과학적인 접근법과 벤치마킹을 통해 수행해야 하며 많은 기업인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 ART(경험과 직관력 등)와 Science(과학적 접근법)를 배우고 있다.

4. 본인의 핵심 역량을 정확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여 집중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본인이 일등을 할 수 없는 분야는 아예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하며 자기가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여

1등 할 수 있는 분야에 몰입해야 한다.

5. 준비는 철저히 계획서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 특히 개인의 건강, 자기개발, 자녀교육, 그리고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한 달 혹은 1년, 그리고 2년의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5년, 10년, 15년, 아니 20년이 소요 될지도 모른다.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그리고 철저한 준비만이 미래를 보장한다.

6. 기업가 정신, 주인의식, 그리고 남과 더불어 잘 할 수 있는 팀 스피리트로 무장해야 한다.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란 변화를 탐구하고, 변화에 대응하며, 변화를 기회로 이용하는 자'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혁신(Innovation)과 행동하는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7. 변화는 쉬운 것부터 단계 단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히말라야 산에 등정하기 위해서는 설악산부터 등산해야 한다. 개인의 기호지만 건강을 위해 담배와 술을 줄이는 변화를 주도할 수 없다면 과연 더 큰 변화를 주도할 수 있겠는가?

8. 변화는 주변 환경과 함께 균형과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본인만 변화하면 되는데 서로 상대에게 먼저 변화하라고 강요하여 갈등만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제 도전과 변화에 대한 말을 끝맺어야 할 것 같다.  
요즘 경영인들 사이에는 '솔개론' 이 화제다. 가장 장수하는 조류로

알려져 있는 솔개의 수명은 보통 40년이지만, 일부 솔개는 최고 70년까지 산다고 한다. 그러나 70년까지 장수하기 위해선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심을 해야만 한다.

솔개가 태어나 약 40년이 되면 발톱이 노화해 사냥감을 잡아챌 수 없게 된다. 부리도 길게 자라고 구부러져 가슴에 닿게 되고, 깃털이 질고 두껍게 자라는 바람에 날개가 무거워져 하늘로 날아오르기도 힘들게 된다. 대부분 솔개는 그대로 죽을 날을 기다리지만 일부 솔개는 약 반년에 걸친 힘든 광생 과정을 택해 70년까지 산다는 것이다. 광생의 길을 선택한 솔개는 산 정상으로 날아올라 동지를 짓고 수행을 시작한다. 먼저 부리로 바위를 쪼아 새 부리가 돌아나게 한다. 그런 뒤 날카로워진 새 부리로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새로 발톱이 돌아나면 이번에는 날개의 깃털을 뜯어낸다. 이렇게 반년이 지나 새 깃털이 돌아난 솔개는 새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30년의 수명을 더 누린다는 얘기가.

이 솔개 이야기는 고통스러운 재탄생 과정을 겪지 않고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의미다. 경제상황과 시장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과거의 묵은 습관과 전통에 얽매이면 살아남지 못한다. 때론 장수하는 솔개처럼 옛 모습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솔개론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 역정에도 적용될 법하다. 이대로 죽을 것인지, 아니면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새로운 도전' 과 변화를 통해 나머지 삶을 평화롭고 안정되게 지낼 것인지.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도전' 에 대해 다시 한 번 곰곰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다.

추동화 (주피터 익스프레스 대표이사)